

2016년 12월 7일, 구좌읍 종달리 김보배씨 댁, 송정희 조사.
김보배(여, 1939년생, 구좌읍 종달리)

[제보자] 딸을 난디, 이제 큰딸 죽은딸 셋딸 영 행 딸을 세 성제가 난디, 큰딸은 불런.

“너 누게 사냐?” 허난

“난 어머니 덕에 아버지 덕에 삽니다.”

큰딸은 그렇게 골앗다 허여 큰딸은 그렇게 곤곡, 셋딸도 불런 마치 그렇게 언니 곤는 대로 곤는 거라. 허난, 죽은딸은 불령 골으난

“난 어멍 덕에도 안 살곡, 아방 덕에도 안 살곡, 난 나 베포롱 아래 선그묵으
로 살았우다.”

죽은딸이 경 허난 이젠 어멍 아방덜이 이제 딸 입어난 옷 시 설적에 입어난 옷 멧 설적에 입어난 옷, 몬 설령 나가렌 죽은딸을 내쫓겨 뱃다 헤여 내쫓가 부난 이제 죽은딸은 나간 거 아니? 나가난 이젠 그 죽은딸이 나가 부난 오꼴 아방덜이 거지가 뉘 분 거라. 어, 거지가 뉘 살 형편이 아니라. 이젠 게난 그 딸은 그 옷을 저네 산천으로 가노라 가노라 허난, 어디 그 산천에 불이 베포롱헨 디가 잇어. 잇이난 그덜 들어간 모양이라. 들어가네 영 간 보난 쪼끌락헨 오막살인디 아무도 엇고 할망 혼자만 잇어. 할망 혼자만 잇이난

“아이고 이거 넘어가단 이 나그네 허쉴 이 집이라도 요 무똥이라도 빌려주라.”

“어디랑 우리 큰마통이 궁둥이 뉘고 어디랑 우리 죽은마통이 궁둥이 뉘고 빌려줄디가 엇다.”

“아이고 경 해도 요디 허쉴만 빌려만 주라.”

하도 허난 이젠, 어디 정제구석인가 어디 빌려줬던 모양이라. 빌려주난에 빌려 쥔 영 보난, 산천이라노난 옛날에 아덜은 그 할망은 세 변이나 두 변이나 마만 파당 먹어노난 솥이 솥이 아니라, 게난 이제 그 사람이 밤이 영 솥을 강 올앙 보난, 원 기가 차는 거라. 경허난 이젠 그 사람이 그 삼시세끼가 뭔가 견어당 밤이 그 솥을 다 닦앗다 허여, 닦안 쉴 뉘네 이젠 밥을 헤연 그 큰아덜신디 들령 가난

“넘어가단 질간나이, 어디 간 버랭이 밥 행 왕 지?라 먹으렌 헛덴 안 먹켄.”
(웃음)

그 밥을 안 먹언, 돌려분 거 아니, 돌려부난 셋아덜도 헤 가난 경 골앙 꼭 언니곤은 듯 골아네 안 먹은 거라. 죽은아덜은 헤다 주난 막 막 맛있게 그 밥을 먹어. 밥을 먹으난에 아, 아시 먹어가난 성이 막 불랐던 모양이라. 먹고판, 경허난에 영 사람이 영 보니깐, 그 마 파 먹으멍 그 돌 앓아단 쥔 것이 그 사람 딸 눈엔 다 금으로 보이는 거라. 응 금덩어리로 금덩어리로 다 보이는 거라. 돌덩어리

가. 게난 이젠 장 돌아오면은 그 딸이 여자가 그 족은아덜?라

“하나 앓안가그네 풀앙 오라.”

“그거 얼마 받아오민 뉘여?”

“가그네 돌아진 것만 주렌허라.”

이것에 금을 치지 말앙 돌아진 금만 주렌 허민 사 가는 사람들이 알아그네 그 돈은 줄 거렌. 아 이젠 돈을 하나 앓앙 강 아 그걸 이젠 풀레 가니깐 돈을 지영 올 수가 엇는 거라. 지영 올 수가 엇언. 이젠 그걸 행 어뎡 행 가정 오난 아 이젠 이 돈을 어디서 낮이넌 허난에 이 돈을 어뎡 행 벌엇이네 막 그냥 동네 사름 이 경 골은 생이라. 경 골으난 경현 것이 아니고, 이제 나가 나 복이 많허니깐 이 담 둘레 낚진 것이 나 눈엔 다 금덩어리로 보엿인게 경헤그네. 그땐 그 족은 아덜이영 이젠 결혼사 행 살앗인디. 사노렌 허난 막 어뎡 아방덜이 거지가 뉘 거라. 거지가 뉘 허난 그 딸이 잘살아가난

“훈번 우리 거러지 잔치를 허게. 거러지 잔치를 허면은 이제 혹시 거러지덜이 다 올 거난. 거러지 잔치를 허게.”

응 거러지 거러지 잔치를 헛다 허는 거라. 이제 일년가 메칠을 거러지 잔치를 다 허난. 원 세상 거러지는 다 와도 지네 어뎡 지네 아방은 안 와. 안 오난

“아이고 우리 어뎡 우리 아방은 죽엇구나.”

죽엇구나 헤네 이젠 잇이난. 막 날 설르는 날은 영 보난 할망 하르방덜이 손 심곡 작데기 짚으곡 행 막 들어와 들어오는 거 보난 지네 어뎡 아방이라 게난

“저디 오는 사름이랑 저디 오는 하르방이랑 밥이곡 국이곡 물이곡 훈 직도 주지 말라.”

그 딸이 종덜?라. 주지 말렌 허난 그 물을 안 쥘 이제 그 할망 뭐하지 안 헛 수과? 손님덜 다 가 부난 할망 하르방덜은 이제 방으로 모신 거라. 딸이 이 할망 하르방덜 다 몸 모욕을 시키렌. 종덜?라. 모욕을 시키렌 허난 이젠 종덜은 그 사람 문딱 다 모욕을 시켄 이젠 옷을 헤다네 세 옷을 헤단 바짝 입저네 이제 할망 하르방덜이 앓인거 아니. 앓어네 이제 밥을 이젠 잘 출령 밥을 헤 온 거라. 어뎡 아방나시 종덜이 헤여 오난에 그 밥을 영 허젠 허난 아이고 난 정말로 응. 쥘 아무 쥘도 엇노렌 게난 그 딸이 저 할망 하르방덜 옛말이나 하나 곱읍센 그 밥을 먹으렌 앓이니깐 옛말이나 하나 곱으렌 허난

“난 들은 말도 본 말도 엇수다. 들은 말도 본 말도 엇인디 딸 세 성제가 난디. 큰딸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 덕에 사노렌 허곡. 셋딸도 어머니 아버지 덕에 사노렌 헨 족은딸은 이녁 베통 선그릇 아래로 사노렌 헨 내쫓가 부난 우리가 이렇게 거지가 뉘어네.”

“어머니 아버지 나 얼굴을 훈 번 보센.”

경 행 보난 딸이라. 경 행 살앗덴 험디다만은 뭐 옛말은 우리 할망 하르방 잇 일 뉘 많이 들엇주만은 다 잊어비연 옛말 곱아지크라.

- 핵심어 : 족은딸, 마통이, 복, 금, 거러지 잔치, 마, 베포롱 아래 선그릇, 큰딸, 셋딸